

⑦ 연합뉴스 │ < ▷ 대통령적인수위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; >



뉴스홈 | 최신기사

<월드컵축구> 허정무호, 상대 골문 열기에 총력

송고시간 | 2008-10-10 18:27











배진남 기자 기자페이지



(파주=연합뉴스) 배진남 기자 = 이번엔 득점포가 불을 뿜을까.

허정무호가 11일 열릴 우즈베키스탄과 축구대표팀간 친선경기를 앞두고 실시한 마지막 훈련에서 숙제로 지적된 골 결 정력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.

우즈벡과 평가전은 15일 아랍에미리트연합(UAE)과 치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B조 2 차전을 앞둔 모의고사라 대표팀은 득점력 빈곤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고 자신감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.



대표팀은 10일 오후 파주NFC(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)에서 1시간10분 가량 훈련했다.

러닝과 스트레칭으로 가볍게 몸을 푼 선수들은 1대1 돌파, 볼 빼 앗기 훈련 등을 차례로 소화한 뒤 경기장을 %가량만 사용하면서 20분 정도 한 차례 미니게임을 가졌다.

이후 세트피스 상황에서 약속된 플레이를 반복했고, 마지막으로 중거리슈팅으로 훈련을 마무리했다.

훈련 내내 상대 골문을 열려는 세밀한 플레이에 대한 허정무 대 표팀 감독이 주문이 이어졌다.

허 감독은 4-4-2 포메이션에서 주전팀에 이근호(대구)와 신영록(수원)을 최전방 투톱에 배치하고, 좌.우 미드필더에 박















핫뉴스 →

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, 뉴욕 변호사 시 험 또 불합격

박진,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"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"

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...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

"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"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'그날...

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...여왕 "양국...

프로야구 LG-SSG전 오심 내린 심판, 2군 강등...

기원전 2~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..."가장 오래...

한국 유튜버,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...



지성(맨체스터 유나이티드)와 이청용(서울), 중앙미드필더에 기성용(서울)과 김정우(성남), 포백 수비라인은 왼쪽부터 김동진(제니트)-강민수(전북)-곽태휘(전남)-이영표(도르트문트)를 세우는 등 우즈베키스탄전 선발 라인업의 윤곽을 드러냈다.

허 감독은 미니게임 초반 공격수들이 상대 페널티지역 안으로 공을 연결하려는 시도만 계속하자 경기를 잠시 중단시켰다. 그는 바로 "어디까지 들어가서 슛을 할 거야? 슈팅 찬스에서는 모두 슈팅을 하란 말이야"라며 불호령을 내렸다.

상대가 수비를 강화한 뒤 역습을 노릴 것에 대비, 두터운 수비벽을 뚫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중거리슛을 아끼지 말라는 요구였다.

이후 선수들은 과김하게 중거리슛을 쏘아댔다. 양팀 통틀어 유일한 득점을 성공시킨 기성용 등 미드필더들도 슛을 겁내지 않았다.

미니게임 뒤에는 좌.우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고 장신 선수들이 문전에서 마무리하는 움직임을 가다듬었다.

왼쪽에서는 박지성이, 오른쪽에서는 이청용과 김형범(전북)이 크로스를 올렸고 강민수, 곽태휘, 김동진, 기성용, 신영록, 정성훈(부산) 등 포지션을 떠나 제공권 장악 능력을 갖춘 선수들이 문전에 포진했다.

이후 마지막으로 미드필드 중앙에서 박지성, 김형범, 김동진, 이청용, 정성훈, 최성국(성남) 등이 차례로 중거리슛을 골 문을 향해 날렸다.

이근호는 훈련 뒤 인터뷰에서 "감독님이 위축되지 말고 K-리그에서처럼 과감하게 슛을 하라고 주문하신다"면서 "골 부담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우리도 경험이 쌓인 만큼 한 골, 두 골 차분하게 만들어가다 보면 더 많은 골들이 터질 것"이라고 말했다.

11경기 연속 무패행진(5승6무)이라는 나쁘지 않은 성적에도 답답한 공격력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허정무호. 이번만큼은 시원스런 골 잔치로 우려를 씻어내겠다는 의지가 잔뜩 묻어났다.

hosu1@yna.co.kr

♂ 관련기사

김진규 무릎 연골 파열..축구대표팀 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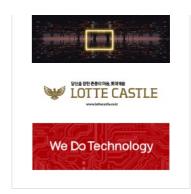
- <월드컵축구> 우즈벡 대표팀 입국 '내일이 경기인데'
- <월드컵축구> 허정무호, 위기탈출 해법 찾을까?(종합)
- <월드컵축구> 허정무호, 상대 골문 열기에 총력
- 김치곤, 김진규 대신 허정무호 합류

제보는 카카오톡 okjebo
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 2008/10/10 18:27 송고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

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



에디터스 픽 Editor's Picks

영상

▶ 01:59

[영상] 윤석열, 안철수 '패싱' 질문에 "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"

● 뉴스

▶ 01:18 **▶** 02:22

[영상]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...누가 학대했니 명상] 곡사포 수송헬기·장갑차...美,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에

[영상]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된 링컨 등 후보군"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

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, 2년 1개월만 종료...마스 크는 그대로

尹당선인·安위원장 만찬 회동…"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어"

尹 당선인 "韓,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…美와 더 강력한 동맹"

'검증의 시간' 시작됐다...한동훈, 청문회 준비 돌입

"'의학에 뜻' 정호영 아들,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"

댓글 많은 뉴스

】 김건희 여사 팬카페,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ⓒ 144 ^{철에 고발}

2 '유퀴즈' 尹당선인 출연 논란..."프로그램 취지와 ഈ 66 안 맞아"(종합)

3 정호영 자녀,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○ 61 대병원 자원봉사

4 두문불출 이재명, 이발·염색...조기등판론 속 활 ☞ 56 동재개 예열?

5 문대통령, 손석희와 대담...靑 "임기 5년 소회 밝 ⊕ 40 힐예정"

뭐하고 놀까? ## 😝 →



유튜브채널

















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

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#D 그래픽 **뉴스 상품** 프리미엄뉴스 뉴스리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사베포

테미벌뉴스 핫뉴스 톰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**출판물** 이매진 연합연강 영문연강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

뉴스+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.톱뉴스사설 이시각.헤드라인 **광고** KTX.열차 AREX.공항철도 모바일 P.C.홈페이지 출판물

 모바일뉴스
 모바일앱
 모바일앱
 보도사진
 이미지
 그래픽
 동영상
 인물

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حربی Español Français **관련사이트** 연합뉴스TV 인포메스 한민족센터 K결정기회단(K-ODYSSEY) 채용 IR클럽 #홍

계약사/제휴문의

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

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(02-398-3000) 사이트맵

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| 등록번호 문화,나00009 | 등록일자 1980.12.29 | 발행일자 1980.12.29 | Tel. 02-398-3114

(C) [대표이사]성기홍 [편집인]조채희

Yonhapne